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의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정유진

차의과학대학교 임상미술치료학과 박사과정

A Phenomenological Study on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ers' Group Art Therapy Experiences

Yu-Jin Jung

Doctoral Course, Major in Clinical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CH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집단미술치료 참여 경험을 알아보고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G시 아동발달재활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지, 언어, 미술 치료사로, 총 5명의 치료사가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집단미술치료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의 집단미술치료 참여 경험은 '감정의 정화', '새로운 발견', '격려와 위로', '긴밀한 관계 맺음'의 총 4개 범주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하면서 감정 정화를 경험하고 나와 동료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집단 안에서 격려와 위로를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융합적 관점에서 미술치료를 적용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치료사, 집단미술치료, 현상학적 연구,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meanings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ers'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in a group art therapy. The 5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composed of cognitive, language and art therapists working at children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center in G city. The group art therapy was provided to participants from October to December, 2018.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from January to February, 2019.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by Colaizzi(1978). As a result, four categories were derived: "Purification of emotions", "New discovery", "Encouragement and comfort", and "Close relationship". In conclusion, therapists participating in a group art therapy experienced purification of emotions and newly discovered about themselves and colleagues. And through encouraging and comforting in the group, they became closer. These results may serve as basic data on using art therapy for giving psychological support to therapists who provide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Key Words :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er, Therapist, Group Art therapy, Phenomenological Study,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Yu-Jin Jung(eugene.artlab@gmail.com)

Received July 3, 2020

Accepted August 20, 2020

Revised August 5, 2020

Published August 28, 2020

1. 서론

현재 국내의 장애아동 재활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1].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은 언어, 청각, 미술, 음악, 놀이, 운동 등이며, 부모상담을 포함하여 회당 50분을 원칙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사설기관 등을 통해 제공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2007년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개편으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제공하였던 장애아동 대상의 치료, 교육, 발달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공급기관을 통해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은 치료 대상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사업수행기관의 과도한 경쟁과 교사(치료사)의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잦은 이직 등의 문제는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2].

2019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아동의 인구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년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수는 72,618명으로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55,702명(76.7%)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애아동을 위한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3].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중요성에 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4]에서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는 급여 적정성과 급여 결정 방법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근무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며, 복리후생지원으로 장기근속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으로 제기 되었다[5]. 더불어 치료지원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치료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사의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심리적인 부분의 안정이나 분석이 필요함이 보고되었다[6,7].

언어치료사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의 주 요인은 치료와 업무를 비롯하여 보호자·동료·대상자와의 갈등으로 보고되었다[8]. 또한 음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동료, 보호자 등 대인관계 요인은 치료사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발달재활치료사와 관련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치료사의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회의감 등을 주제로 하였다[8-13]. 그 결과,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자기격려 등의 요인들이 치료사의 심리사회적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료사가 업무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기관 및 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 그들이 기관 내에서 소진을 극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떠한 접근방식이 요구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미술치료는 20세기 초기부터 시작되어 심리학, 치료교육, 정신의학, 재활 등의 영역에서 이론과 임상영역을 확장하고 있다[14]. 국외 보건의료계에서는 임상진료지침에서 미술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성인 주요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개발하고 있다[15]. 심리·정신적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미술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가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켰으며, 조직몰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16-18].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이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심리사회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그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치료사의 심리사회적 건강이 치료사 자신 뿐 아니라 치료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19],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리지원에 미술치료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집단미술치료 참여 경험에 대하여 실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는 경험적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표본의 크기보다는 표본 선택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Morse와 Field[20]는 질적 연구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적절성'과 '충분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적절성은 연구 질문에 가장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였는가를 의미하며, 충분함은 연구현상의 탐구가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과 충분함의 원리에 따라,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발달재활서비스 경력 500시간 이상인 치료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발달재활서비스 경력이 풍부한 치료사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대하여 성찰적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경험이 없는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경험과 변화의 과정을 충분히 탐색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시에 소재한 장애아동발달재활기관에 소속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치료사들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100% 참석한 5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0대 3명, 30대 2명이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은 5년 미만 2명, 5년 이상 10년 미만 3명이었다. 참여자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은 인지치료 3인, 미술치료 1인, 언어치료 1인이었다.

2.3 집단미술치료

본 연구에서 실시된 집단미술치료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애아동발달재활기관의 프로그램실에서 이루어졌다. 1주에 1회, 회당 90분씩, 총 8회기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Liebmann[21]의 집단미술치료 모델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회기는 분위기 환기를 돕는 워밍업 단계, 본 활동 단계, 작품 완성 후 피드백단계로 진행하였으며, 회기별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매체는 건식과 습식재료의 효과를 고려하여 회기별로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개인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총 3번의 집단작품 활동을 넣어 집단치료의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Table 1. Group Art Therapy Sessions

	Title	Purpose	Media
1	Create Nickname	Introduce oneself, Building rapport	crayon, color pencil
2	Tree Drawing	Self-exploration	crayon, color pencil
3	Group Doodle	Communication, group cohesion	black ink, paper
4	Resilience	Self-expression, Integration	crayon, color pencil
5	Exploring Color	Sensory stimulation, Self-understanding	wet color drawing
6	Group Mandala	Communication, group cohesion	mandala paper, color pencil
7	Querencia	Sensory stimulation, Self-expression	color clay
8	The Wish Lamp	Integration, Strengthening group cohesion	paper lamp, tissue paper, glue, pen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종결 후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미술치료 경험에 대하여 심층 면담법을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 시, 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회상을 돕기 위하여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던 사진들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면담은 해당기관의 밝고 쾌적한 프로그램실을 선택하여 치료시간이 겹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 면담 시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과정을 안내하고 면담 내용에 대한 녹취 동의를 받았다. 1회 면담시간은 60~90분으로 참여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수집하는 충분성을 고려하여 인당 2회~4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경험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집단미술치료 경험은 어떠셨나요? 2)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3) 집단미술치료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자는 녹음된 내용을 기록하고, 참여자의 진술에서 모호한 내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였다. 또한 추가면담 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시점에는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적 고려를 위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연구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 중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하였고, 동의된 내용에 따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시 사진촬영, 심층 면담 시 녹음이 진행되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문서 및 녹음파일은 개인 신원에 대한 사항을 모두 기호처리하고, 연구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걸고 보관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3년간 보관되며, 해당 기간 후 기록물이나 인쇄물은 분쇄기로 파쇄한 후 폐기하고 전자파일의 경우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함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2.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Colaizzi[22]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5명의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었다. 둘째, 치료사들의 집단미술치료 경험의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하며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였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중복되는 표현을 일반적인 언어로 재 진술하였다. 넷째, 참여자들의 일반적 언어로 형태화 한 내용들을 공통

된 맥락에 따라 주제묶음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다시 범주화 하였다. 다섯째, 분석된 자료를 명확한 진술로 최종 기술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의미단위와 주제묶음, 범주들은 원 자료와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결과 자료를 참여자와 직접 공유하여 확인하였다.

2.7 연구의 엄정성

본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이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적 가치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판단중지와 환원을 통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무작위로 추출된 1명에게 분석 내용을 보여주고 참여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이 참여자의 언어를 왜곡하지 않고 표현되었는지 확인을 거쳤다. 둘째, 적용성에 대하여 본 연구 결과가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면담을 종결하고 연구 참여자 외 다른 치료사 1명에게 연구결과를 읽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치료사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결과에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Table 2.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ers' Experience of Group Art Therapy

Category	Theme Clusters	Theme
Purification of emotions	Distance from inner conflict	Psychological conflict is repeatedly revealed in the artwork
		Clearly looking at uncomfortable things
	Resolving negative emotions	Relieve stress
		Reduced exhaustion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	A relaxed mind
		New attempts and challenges
New discovery	Enlightenment about myself	Recognition of my strengths and weaknesses
		Focus on my thoughts and feelings
	Harmony with colleagues	Understanding each other's differences through group artwork
		Experience harmony with colleagues
Encouragement and comfort	Self-encouragement	Encouraging myself
		Thanks for daily life
	Empathy and comfort	Emotional empathy
		Recognize the universality of the problem
Close relationship	Fellowship	Prejudice disappears
		Match rather than check
		Belonging
	Cooperation between treatment areas	Increased understanding between treatment areas
		Active co-work

일관성은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심층 면담의 녹음, 필사와 현장 메모 등을 이용하였으며, 면담 종료 후 녹취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필사함으로써 자료 누락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2달간 사례회의를 통해 치료사의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유의미한 발견을 나누고 의미 있는 진술 단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그 후 질적 연구 경험이 있고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치료사 1인에게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받은 후, 연구자간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연구자가 모든 편견에서 해방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중립성 유지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의 업무 환경 및 치료영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의 집단 미술치료 경험은 19개의 하위주제와 9개의 주제묶음,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Table 2 참고). 4개의 범주는 '감정의 정화', '새로운 발견', '격려와 위로', '긴밀한 관계 맺음' 이다.

3.1 감정의 정화

이 범주에는 '내적 갈등과 거리두기', '부정적 감정 해소', '심리적 여유'의 3가지 주제묶음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후 부모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무에 대한 고충 외에도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치료사들은 장애학생 치료과정에 대한 고충, 장애학생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개인의 삶 안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요소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3.1.1 내적 갈등과 거리두기

이 주제묶음은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작품에 반복적으로 드러남', '불편한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미술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저는 되게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품에서는 제가 계속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작품을 완성하고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 나눌 시간에 꼭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할(작품을 만들) 때는 아무 것도 모르는 데."(참여자 1)

"이 작품을 할 시기에 일적으로 부담이 엄청 많았어요.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한 건 아닌데, 막상 하고 보니 파도가 휘몰아치는 이미지를 골랐죠. 이 때가 갑자기 수업 양이 많아지고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였는데... 그래서 그 부담감이 이렇게 파도로..."(참여자 3)

"클레이로 (작업)할 때 지금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생각해보게 돼서 좋았어요... 제 안에 제가 불편해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불편해하고 있구나."(참여자 5)

3.1.2 부정적 감정 해소

이 주제묶음은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스트레스 해소', '업무로 인한 소진이 줄어들'으로 구성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고, 집단미술치료 과정에서 몰입을 통해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보고하였다.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깐 그런 게 다 없어지면서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나는 것을 그냥 만지고 느끼고 보고 하니깐... 그냥 이 시간에 딴 생각 안하고 집중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참여자 1)

"제가 맡은 아이 중에 문제행동이 심한 아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 아이를 다독여주면서 더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걸(미술 치료) 하고 나서는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미술 하고 난 다음에는 수업도 더 잘 되는 것 같고..."(참여자 5)

3.1.3 긍정적 심리 변화

발달장애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 종결 이후 이전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근무에 임하고 있었다.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치료사들은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긴장감을 낮추었으며, 치료사 개인 뿐 아니라 치료사 주변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 주제묶음은 '여유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도와 도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을 쭉 보니까, 진짜 요즘 좀 더 편해졌다는 게 느껴져요. 전에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더 힘들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체감하진 못했거든요.”(참여자 2)

“힘들어서 남자친구를 대할 때 울상이 되고 말을 해도 뭔가 가시가 돌칠 것 같았어요, 이걸 시작했던 시기가... 이 관계도 그냥 안 되겠다 싶기도 했고. 근데 미술 할 때 보면, 제가 힘든 데도 그 안에서 좋은 걸 찾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그 사람 그대로 보려고 하나보다 싫어요. 저도 신기해요.”(참여자 5)

“미술을 하면서 새로운 자극에 대해 불안하기도 했지만, 또 겁내지 않고 해볼 때 ‘이것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끝나고는 관심만 갖고서 해 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진짜 시작해봤어요. 도마도 직접 만들고 싶었는데, 혼자 가서 만들어 보기도 했고...”(참여자 1)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았어요. 최근 태블릿을 장만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물도 해주고요... 미술치료가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재밌고 즐거운 걸 또 찾은 것 같아요.”(참여자 4)

3.2 새로운 발견

이 범주는 집단미술치료에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개인작품을 만들 때와 집단작품을 만들 때로 나뉘며, ‘나에 대한 깨달음’, ‘동료와의 조화’의 주제묵음으로 구성되었다.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생각과 느낌을 새롭게 경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3.2.1 나에 대한 깨달음

이 주제묵음은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재인식’, ‘나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의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치료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의식하지 않았던 자신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게 되었다.

“제가 굵은 나무를 그렸었는데, 힘이 있어 보였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주셨고... 뭔가 뚫고 나온다는 느낌이었는데, 제 안에서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는 에너지랄까...그런 게 느껴졌어요.”(참여자 5)

“습식화를 하면서는 의도하지 않은 대로 표현될 때 불안

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에 제시된 주제에 맞춰서 했을 때는 주저 없이 했었는데, 이렇게 틀이 없으면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독립해서 지낸지 6년째인데, 경제적인 의무감도 상당히 크고,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불안하고...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되게 불안한 사람이나, 생각했죠.”(참여자 1)

“제가 직접 색을 칠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걸 진짜 싫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생각만 했을 때랑 다르게 이렇게 칠해보니까 오히려 확인이 되어서...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좋았어요. 저에 대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잡게 되는 것 같아서.”(참여자 3)

“저를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에너지가 훨씬 많은 편이거든요. 하는 일도 그렇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제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4)

3.2.2 동료와의 조화

이 주제묵음은 ‘집단 작업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 ‘동료와 어우러짐을 경험’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치료사들은 집단 공동 작업에 참여하면서, 동료치료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화롭게 어울림을 경험하게 되었다.

“만다라 안에 우리 모두의 작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집단원)을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고.”(참여자 1)

“이 날은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나서도 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우리의 작품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특수교육 배울 때도, ‘우리 (장애)아이들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그리고 어떻게 어울려야 할까.’를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다른 것도 조화롭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참여자 3)

“서로 각자의 색으로 칠했는데 어울리는 것도 신기하고, 이 시간 자체가 다른 회기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웃음소리까지가 한 작품 같아요.”(참여자 4)

3.3 격려와 위로

이 범주는 ‘자기 격려’, ‘공감과 위로’의 주제묵음으로 구성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 격려의 모습을 보였고, 집단 안에서 문제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위로 받았음을 언급하였다.

3.3.1 자기 격려

이 주제묶음은 ‘열심히 살아온 나를 격려’, ‘일상에 대한 고마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치료사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프로그램 할 때는 선생님들(참여자들)께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더 가까워지면서 제가 어려워하는 것도 들어주고... 근데 마지막에는 저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일 잘 지나왔다, 나도 잘 했구나. 수고했다.”(참여자 1)

“작품을 보면서 위로 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떠오른 기억들 속에서 일상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스스로 다독거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참여자 4)

3.3.2 공감과 위로

이 주제묶음은 ‘정서적 공감’, ‘문제의 보편성 확인’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치료사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집단 안에서 공유하며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보편성을 확인하며 위로받기도 하였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낼 때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혼자 오버하는 것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참여자들)의 반응이 제가 두려워하는 반응들이 아니었어요. 00선생님(참여자)도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해서 도움이 되었어요.”(참여자 3)

“서로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것과 비슷한 경험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 때의 제 기억도 떠오르고 그 감정이 이해가 가면서... 나도 이런 때가 있지, 나도 그 때 되게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울컥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기까지 잘 성장해 왔구나...”(참여자2)

3.4 긴밀한 관계 맺음

이 범주는 ‘동료애’, ‘치료영역 간 협력’의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집단미술치료에 함께 참여한 치료사들은 서로간의 친밀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관계의 변화는 치료영역 간의 어려움을 주고받으며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3.4.1 동료애

이 주제묶음은 ‘선입견이 사라짐’, ‘견제보다 어울림’,

‘소속감’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집단미술치료 참여 이후 치료사들은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견제하기 보다는 함께 돕는 태도로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긴밀한 동료관계는 기관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들(참여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구나.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나, 하기도 하고.”(참여자2)

“선생님들(참여자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먼저 누구에게 다가가는 성향이 아닌데, 이걸 하면서는 사적으로 밥 먹는 자리도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관계가 두터워진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참여자 3)

“다른 기관에서는 사실 치료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일단 나이 차이도 컸고,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마음을 열기가 어렵더라고요. 서로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프로그램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긴장되었어요. 일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제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이걸 하면서 여기는 내가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표현해도 되는구나, 다른 분들도 비슷하구나, 안심이 됐어요.”(참여자 5)

3.4.2 치료영역 간 협력

이 주제묶음은 ‘치료영역 간 이해도 높아짐’, ‘적극적인 코워킹’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영역에서만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여 전체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쉽지 않다.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 과정을 통해 간학문적 치료접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더욱 긴밀해진 관계 안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코워킹의 형식으로 치료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미술이라는 영역 자체를 다시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치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서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코워킹 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전문성을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참여자 4)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하면서, 치료사들끼리 일적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목표로 (인지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런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이걸 함께 가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각자 치료에서 보는 (장애학생들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참여자 5)

4.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집단미술치료 경험은 ‘감정의 정화’, ‘새로운 발견’, ‘격려와 위로’, ‘긴밀한 관계 맺음’으로 확인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업무 부담감이나 치료적 관계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치료의 더딘 진전, 치료 능력 부족, 보호자와의 갈등, 직장 내 인간관계가 치료사들이 직장생활에 회의를 갖게 하는 부분이라는 연구 결과[8]와 맥을 같이 한다. 치료사들은 직업특성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도록 훈련 받으며, 자신의 욕구는 우선순위에 밀려 자칫 소진이나 치료사의 내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23].

치료사들은 자신의 심리적 소진을 미숙함, 무능감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12], 인식을 하더라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결과적으로는 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근무 환경에서도 치료사의 임금체계는 임시직, 시급제이고, 서비스 수요의 빈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 일의 연속성을 보장 받기 어렵기 때문에[24], 치료사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치료사는 스트레스 회복을 위해 주로 주변인들과 대화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식, 회피의 순이었다[8]. 그밖에 학술활동 및 워크숍 참여, 슈퍼비전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진을 극복하려는 경향도 보인다[5]. 그러나 스트레스를 회피한다는 답변이 높은 순위에 있었다는 것과, 열악한 여건에서는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관차원의 보수교육이나 심리지원, 슈퍼비전 제공 등의 실제적 개선이 요구된다.

미술작업을 위한 몰입 과정은 치료사들에게 감정의 정화를 돕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미술치료는 상징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내적 갈등을 작품으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미술치료 참여자는 자신의 갈등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며, 갈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마치 거울을 보듯 앞에 두고 바라보는 것은 마치 스스로를 안과 밖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25]. 거리를 두고 작품에서 표현된 이미지를 보는 경험과, 그림에 대한 해석 및 피드백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26].

미술은 기본적으로 시각을 매개로 감정에 영향을 주며, 풍부한 색 경험은 생명의 에너지를 주거나, 차분히 가라앉도록 심리적 균형을 제공한다[27]. 또한미술매체 활동을 통해 집중하면서 긴장과 불안을 이완시키고, 안전한 심리적 퇴행을 촉진한다[28]. 이러한 미술치료의 특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여유를 갖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과 조화됨을 의미하며, 잘 적응한다는 것은 개인의 물리적·심리적·생리적 밸런스와 더불어 창조를 향한 능동적인 노력을 뜻한다[29].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작업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극에 노출되어 새로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심리적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며 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자원을 찾는 것, 주저하기만 했던 새로운 일을 기꺼이 실행해보는 것 등의 태도로 드러났다.

집단미술치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도록 도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도울 뿐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집단원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집단미술치료에서 참여자들은 총 3번에 걸쳐 직접적으로 작품을 함께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우러짐의 희열을 느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집단미술작업이 집단 내 의사소통 만족도를 높이고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응집력이 증대되었다는 연구결과[30]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 과정 안에서 자신의 지난날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기 격려의 모습을 보였다. 집단 내에서 어려움을 공유하는 과정 안에서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과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자기격려는 스스로를 격려함으로써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적 자원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내적통제 변인이다[31]. 김태선과 이지연[32]은 집단미술치료에서 개인의 내적자원이 촉진되고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변화하게 되어, 성취에 대한 자부심, 유능감, 자기 신뢰감 등의 자

기격려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연구[5]에서는 소진의 영향으로 자아탄력성이 낮아진 미술치료사에게 정서적 공감과 유대를 할 수 있는 동료의 지지 등 외재적 동기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공감을 통한 문제의 보편성은 자신의 고민과 갈등, 생각과 감정들을 다른 이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보편성은 가장 높은 순위의 치료적 요인으로 나타났다[26].

프로그램 초기, 참여자들은 업무의 부담감을 다른 치료사와 공유하는 것이 자칫 자신의 능력이 저평가될 위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각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고충을 작품 제작과 작품 설명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이는 자신이 가진 문제의 보편성을 확인하며 집단 안에서 공감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집단 원간의 지지를 경험하며 문제의 보편성을 확인한 것이 참여자의 긍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선행연구[27]와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치료사들이 집단 내 유대감을 높이고, 지지 관계를 형성한 것은 동료 간 견제가 아니라 어울리고자 하는 태도로의 변화를 촉진했으며,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재활기관에서는 다양한 치료적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 과정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아동이 같은 기관에서 둘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치료사들은 동료치료사들과 팀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의 제한으로 의견충돌을 경험하기도 하며, 치료영역이 달라 선불리 이야기를 꺼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치료영역 간 협력이 치료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발달재활기관에서는 보다 긴밀한 치료적 협력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협력적 관계에서의 지식의 공유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타 분야 전문가에 대한 열린 마음,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정서·사회적 측면과, 본인의 전문영역과 상대방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되었다[2].

집단미술치료 경험은 치료사들에게 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같은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조직 몰입을 돕고, 긍정적 상호작용은 업무만족도를 높인다[33].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종료 이후 치료사들은 자발적으로 동일 케이스를 대상으로 코웍의 치료지원을 하며 치료효과를 높이는 등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적 갈등요소를 마주하고,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통해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심리적자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업무 부담감을 비롯한 어려움들에 대해 치료사들은 다른 영역의 치료사들과 나눌 기회가 적었으나, 집단미술치료 과정에서 치료 시간 공감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업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치료사들은 영역 간 코웍을 통해 치료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설 발달재활기관에서는 전체회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치료영역간의 교류가 미비하다. 발달재활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증상이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고, 중복·복합 장애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보다 효과적인 치료지원을 위해서도 치료사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소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심리지원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Disabled Children Family Support Project Guide. Project Report. (20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9-12.
- [2] S. J. Yu. (2019). Qualitative Research on Parenting Stress & Homeostatic Factors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Voucher) of Disabled Children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Grounded Theory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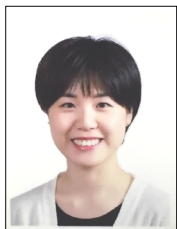
-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7(1), 123-143.
- [3] Y. H. Cho, Y. J. Kim, Y. J. Oh, Y. M. Wang & T. Y. Kim. (2020). *Disability statistics annual report*,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4] Y. J. Yoo & B. C. Choi. (2012).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Therapist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5(3), 163-184.
DOI: 10.20971/kcpmd.2012.55.3.163
 - [5] Y. H. Lee. (2019).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for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and on-site plan*. Proceedings of 27th Annual Conference on Integrated Approach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The Korean Society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Korea, 80-82.
 - [6] B. S. Seo & B. I. Lee. (2012). The Needs of Therapists on Therapeutic Support fo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Child Day Care Cent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6, 67-94.
 - [7] S. J. Kim, Y. J. Yoo & C. S. Yoon. (2008). Profile of Rehabilitation Therapy Service Providers Including Their Levels of Satisfaction within a Voucher Based System.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7(4), 167-182.
DOI: 10.15724/jslhd.2008.17.4.010010
 - [8] T. W. Kim & Y. S. Park. (2018). A Study on the Stress and Skepticism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7(3), 203-214.
DOI: 10.15724/jslhd.2018.27.3.017
 - [9] A. R. Kim. (2011). The Effects of Music Therapists' JobStress on Burnout.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3(1), 45-65.
DOI: 10.21330/kjmt.2011.13.1.45
 - [10] H. H. Jeong. (2017). Effects of Self Encouragement and Job Stress on Art Therapist's Psychological Burnout. *The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7(1), 1-17.
DOI: 10.34167/cliart.7.1.201706.1
 - [11] H. J. Kim, M. J. Park, H. J. Byun, E. J. Shin & Y. J. Chung. (2018).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Burnou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6), 73-87.
DOI: 10.5392/JKCA.2018.18.06.073
 - [12] J. S. Kim & Y. A. Lee.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logical Burnout Amongst Play-therapist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5(4), 567-585.
 - [13] S. H. Lee & K. W. Kim. (2018). A Study on Self-efficacy and Burnout According to Career and Training Experience in a Play Therapis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1), 555-568.
DOI: 10.22143/HSS21.9.1.44
 - [14] Y. J. Chung. (2016). The Characteristics of Art and the Therapeutic Meaning of the Creative Process in Art Therapy.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3(5), 1221-1237.
DOI: 10.35594/kata.2016.23.5.001
 - [15] H. Choi, T. E. Kim & Y. J. Chung. (2019). Requirements Strategy and Requirements Plan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of Art Therapy Technologie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6(6), 1009-1025.
DOI: 10.35594/kata.2019.26.6.001
 - [16] K. M. Lee, I. G. Kim & E. S. Lim. (2020). The Effects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based on Mindfulness Meditation on the Job Str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Office Work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5), 410-425.
DOI: 10.5392/JKCA.2020.20.05.410
 - [17] Y. J. Jung, Y. J. Chung, H. J. Cho & H. E. Cho. (2019). The Effects of Social-Supportive Group Art Therapy on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ublic Official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6(2), 389-406.
DOI: 10.35594/kata.2019.26.2.008
 - [18] H. K. Hwang & E. Y. Choi. (2006).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to the Public Official's Job Str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2), 325-345.
 - [19] Y. M. Kim & Y. S. Park. (2008). The Effects of Music Therapis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on Burnou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6(1), 13-20.
 - [20] J. M. Morse & P. A. Field.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Sage Publications.
 - [21] M. Liebmann. (2004). *Art Therapy for Groups: A Handbook of Themes and Exercises*. 2nd ed, Hove: Brunner-Routledge.
 - [22] P. F.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gist Views It*: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23] D. Y. Kim & E. Y. Hwang. (2018). The Effects of Burnout of Music Therapist on Therapeutic Alliance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care.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0(2), 53-78.
DOI: 10.21330/kjmt.2018.20.2.53
 - [24] H. J. Yoon, S. J. Lee & S. S. Kim. (2015). A Qualitative Study on Service Experience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Therapis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4(3), 365-380.
DOI: 10.15870/jsers.2015.09.54.3.365
 - [25] C. Blomdahl. (2017). *Painting from Within*, Gothenburg, Sweden.
 - [26] S. N. Choi. (2010). Trainee's Perception on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Art Therap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1), 139-152.

DOI: 10.15703/kjc.11.1.201003.139

- [27] S. S. Kim. (2013). Integrated Art Activities to improve Creativity and Humanity from a Healing perspective: Using Rudolf Steiner's Twelve Senses.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7(2), 171-192.
- [28] M. J. Kim. (2015). A Qualitative Study about Effective Art Materials for each Therapeutic Factors in Art Therapy: Based on Expert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2(4), 1085-1110.
DOI: 10.35594/kata.2015.22.4.003
- [29] M. S. Hyun. (2013). The Case Study that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for Reduc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Improving the Adaptability of Military Maladjusted Soldier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9(3), 235-262.
- [30] T. R. Moon & S. Y. Chun. (2019).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Group Cohesion of High School Soccer Player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6(4), 693-712.
DOI: 10.35594/kata.2019.26.4.005
- [31] J. Y. Kim. (2010).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perfectionism and trait anxiet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32] T. S. Kim & J. Y. Lee. (2013).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Self-Encouragement and Trait-Anxiety.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0(3), 547-567.
DOI: 10.35594/kata.2013.20.3.005
- [33] S. A. Moon & Y. M. Lee. (2009). The Impacts of Social Network Activities on Company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6(2), 55-67.

정 유 진(Yu-Jin Jung)

[정회원]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회화·판화전공 (미술학사)
- 2012년 8월 : 차의과학대학교 임상미술치료전공 (임상미술치료학석사)
- 2013년 2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임상미술치료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미술치료

· E-Mail : eugene.artlab@gmail.com